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Living Environment of the Group-homes for the Elderly
-Focusing on Jeonju and Kwangju-

Ahn, Kyung Ohn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tuations of group-homes for the elderly and clarify the problems of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supply conditions. 4 group-homes were surveyed in Jeonju and Kwangju citi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various ways including the survey conducted by facility operators, the measurement of living space, and photo-taking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ith the introduction of nursing care insurance in 2008, the increase of the demand and supply to group-home will be expected, due to less cost for recuperation. The care of elderly in homelike atmosphere is effective to the elderly suffering from dementia.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supply of group-homes for dementia will be needed. 2) Group-homes for the elderly are being supplied under the standards of welfare facilities in the present. Separate supply standards, however, are needed because they are not suitable for small scale group-homes. 3) To supply Group-homes for the elderly on a one-unit basis would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economical unreality, personnel distribution and so on. It is necessary to supply more than two units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4) The management of group-homes for the elderly is financially unstable because the operating funds heavily depend on the users or people who are connected with the facilities through private networks. Therefore,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to settle the financial problem. It would be helpful to build the public networking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group-home for the elderly for the public. 5) In case of the increase in the supply of the group-home in a residential area, it could be helpful to promote the group-home to the public. 6) The operators state that the main problems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e in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shortage of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The financial,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 for personnel an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are required for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management. In addition, the closer network an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community is required. 7) The present living environments for group-homes for the elderly le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considering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elderly. The more careful selections in the color, shape, material, and equipment of the facilities should be made for the convenience of the elderly users.

Keywords: Group-home, the elderly

* Corresponding author: Ahn, Kyung Ohn
Tel: 010-5421-3752, Fax: 041-580-2300
E-mail: ahn-kyoh@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나타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등 노인복지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최대 노인 수는 2010년에는 노인구의 8.6%인 46만 명, 2015년에는 노인구의 9%인 58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8),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심각한 가족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치매노인 입소시설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구가 대비 치매노인 입소비율은 0.6%에 불과하지 5%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박석동 외, 2004).

노인의 치매증세의 초기단계로서는 자신이 싶은 짐에서 거부하지만 증세가 억제될 때는 어느 시기에서는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는 극단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되어 많은 경우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진다므로 '시설'적 환경에서는 의존성이 증가되어 진단적它可以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다. 이는 '가정'과 '시설'에 대한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환경적 대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이다(최정신 외, 2003).

노인의 치매증상은 사람의 끝에 가까운 분위기가며 노인의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속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Aging in Place)가 바람직하고 치매노인의 특성상 가정적 환경, 소규모시설에서의 캐어가 효과적인 정 등을 감안할 때 치매노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복지정책은 대규모시설 공급 밝혀 소규모화, 다기능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입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노인의 치매증상 수요와 공급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편 그룹홈 형식의 민간노인요양시설은 미인가 시설로서 노인입소시설의 수적적이 부족을 보완하는 반면, 예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시설의 연세화, 행정환경의 관리간호의 사각지대에도 있어 인권문제, 시설운영의 불명, 시설이 상존하므로 양성화를 위해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이용교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입소시설, 민간노인요양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적 환경의 주택에서 10

인 내외의 노인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을 노인그룹홈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그룹홈의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노인그룹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실태 및 생활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노인그룹홈의 실패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그룹홈의 개념 및 공급 관련법규에 따라 하다.
2) 노인그룹홈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따라 하다.
3) 노인그룹홈의 생활환경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와 광주광역시를 조사대상지로 정해, 시점 사회복지과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입수하여 입소인원 10인내외의 시설을 조사대상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그 후 전주시에 소재하는 입소인원 10인내외의 시설 6개소 중 방문을 허락한 5개소를 현장방문 후 단독주택형태인 3개소(비주거용 건물 2개소 제외)와 광주광역시 소재 입소인원 10인 내외의 시설 2개소 중 방문을 허락한 1개소를 현장 방문해 단독주택형태일 것 확인해 총 4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노인그룹홈(전주시 3개소, 광주광역시 1개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공간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했다. 설문조사는 시설 운영자(시설장)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운영환경, 운영여건에 대한 평가, 공간관리 및 생활관리의 현황, 생활방식 등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중에 실시되었다.

II. 노인그룹홈의 현황

1. 노인그룹홈의 개념

노인그룹홈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노인그룹홈은 대규모시설과 노인의 중간적인 성격의 소규모 노인입소시설로서, 10인 이내의 노인이 가정적 환경에서 공동 거주하는 형태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그룹홈의 급격히 증가된 이래 치매노인에게 효과적인 거주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덴마크, 미국, 일본 등
지에서도 받아들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
(김대 논, 2000).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
료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신설됨
으로써 노인그룹홈이 공식화되었다.

노인 그룹홈은 「가정」과 「시설」 사이에 위치할 거주
환경의 대안으로, 치매와 소단계에 걸쳐 노인의 거처로
가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1).

노인그룹홈은 3가지 면에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적환경의 소규모시설로서의 장점이다. 즉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①생활환경이 크게 비춰져 않아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 ②노인 개인에게 대한 관심과 배
려가 가능해 개인별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는 점, ③개발적인 수방이 가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④건물 간, 대화를 통해서 안정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점, ⑤노인들끼리 상호 교감을 갖게 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점, ⑥요양의 생활과 보살핌을 통
해 문제행동이 감소되며 치매의 진전이 방지되고, 개선
되는 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노인이 살아온 지역에 입
지해 있어 가족의 방문이 용이하고 가족의 심리적, 육체
적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다. 세 번째는 입소자와 밀접
하게 생활하면서 수발자가 보람을 느끼는 장점이다. 수
봉(1998)은 ①이용자가 입소전보다 차분해지는 점, ②치
매의 진행을 높추던 개인사기의 점, ③신체적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점 등을 노인그룹홈의 효과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그룹홈 공급조건은 일본, 스웨덴 등의
복지권한국과 비교해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인그룹홈 입
소자수는 3개국 모두 9명 이하로 동일하지만 1실 사용자
수, 면적, 공간구성 면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1실
수용자 수 기준은 우리나라가 1실 4인 이하인데 일본은 1
실1인이 원칙이나 2인도 가능하고 스웨덴은 1실 1
인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1실의 면적은 우리나라에는
6.6m², 일본은 7.43m²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스
웨덴은 30  60 m² 내외로 확청하게 크다. 개별실의 공간
구성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용 화장실 또는 개별 화장
실을 구비하는 정도인데 스웨덴은 전용 욕실뿐 아니라
거실, 간이주방을 구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그룹
홈의 거주조건은 스웨덴이 가장 수준이 높으며 일본, 우
라나라의 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그룹홈
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최정진, 이연필 등, 1997). 그
런데 노인그룹홈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황
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노인임소시설 가운데 노인그룹
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점, 노인
그룹홈의 개념에 적합한 공급의 신체 또한 거의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노인그룹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와
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그
룹홈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노인그룹홈
으로 분류되는 노인임소시설 유형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강태환 외(2002)는 노인임
소복지시설 가운데 치매 중증 등 노인성질환 노인을 대
상으로 공급되는 노인요양시설, 김현진(2005)은 거주노
인의 수, 주택형태를 기준으로 간단에서 소규모로 공급

![그림 1] 노인그룹홈의 개념도C

![표 1] 치매의 단계와 노인의 거처

<table>
<thead>
<tr>
<th>일변주택 (Home)</th>
<th>서비스주택</th>
<th>주간보호시설 (Day care center)</th>
<th>그룹홈</th>
<th>장기보호시설 (Long time care)</th>
<th>호스플라스</th>
</tr>
</thead>
<tbody>
<tr>
<td>가벼운 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중간 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심한 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표 2) 노인그룹홈 설치지침(한국, 일본, 스위스)

<table>
<thead>
<tr>
<th>국가</th>
<th>우리나라</th>
<th>일본</th>
<th>스위스</th>
</tr>
</thead>
<tbody>
<tr>
<td>임소자수</td>
<td>9명이하</td>
<td>9명이하</td>
<td>9명이하</td>
</tr>
<tr>
<td>1실 사용자수</td>
<td>1실 4인 이하</td>
<td>1인 1실이 원칙</td>
<td>1인 1실</td>
</tr>
<tr>
<td>1실 면적</td>
<td>6.6m²이상</td>
<td>7.43m²이상</td>
<td>30-60m²여합</td>
</tr>
<tr>
<td>개별실</td>
<td>평균화상실</td>
<td>평균화상실</td>
<td>전용 욕실, 기성, 간이주방</td>
</tr>
<tr>
<td>공간구성</td>
<td>개별화상실</td>
<td>개별화상실</td>
<td></td>
</tr>
</tbody>
</table>

리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임소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뉘는데, 노인양요법실 설치를 앞두고 2008년 4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비용부담 정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노인그룹홈에 해당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양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5가지 종류였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통합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어 총 3가지 종류가 되었으며, 7가지 종류였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양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통합되고 노인양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어 총 3가지 종류로 변경되었다.

2. 노인그룹홈 공급관련법규

표 3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공급되고 있는 노인임소복지시설 서비스내용, 입소대상자 조건(연령, 건강상태, 비용부담여부, 경제상태)을 기준으로 정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임소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뉘는데, 노인양요법실 설치를 앞두고 2008년 4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비용부담 정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노인그룹홈에 해당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양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5가지 종류였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모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통합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어 총 3가지 종류로 변경되었다.

표 4는 2008년 7월 신설된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양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지침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양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수, 1실 사용자수,실적비가준은 동일한 반면 입소대상자, 1인당 면적, 직원배치 기준은 서로 다르다. 즉 입소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자(1.2등급 및 시설급여 권장은 받은 3등급)인 노인양요

<table>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명칭</th>
<th>서비스 내용</th>
<th>입소대상자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노인주거복지시설</td>
<td>양모시설</td>
<td>노인임소시설 설치, 일상생활 관리</td>
<td>다중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td>
</tr>
<tr>
<td></td>
<td>개개천</td>
<td>노인임소시설 설치, 일상생활 관리</td>
<td>나이가 65세 이상인 자</td>
</tr>
<tr>
<td></td>
<td>노인공동생활가정</td>
<td>노인에게 적합한 가정을 주거시설,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 관리 제공</td>
<td>나이가 65세 이상인 자</td>
</tr>
<tr>
<td></td>
<td>노인복지주택</td>
<td>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 입소에 자가 생활화, 상담, 건강관리 등</td>
<td>나이가 60세 이상인 자</td>
</tr>
</tbody>
</table>

주: 노인복지법(2008.4 개정)에 근거해 작성
表 4 노인노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지침

<table>
<thead>
<tr>
<th>명목</th>
<th>목표</th>
<th>노인노동생활가정</th>
<th>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h>
</tr>
</thead>
<tbody>
<tr>
<td>연령대</td>
<td>5-9qm</td>
<td>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td>
<td>장기요양급여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3등급 수 시설급여대상 긴급자)</td>
</tr>
<tr>
<td>면적</td>
<td>1실 사용자수</td>
<td>4인 이상</td>
<td>15.9㎡ 이상</td>
</tr>
<tr>
<td></td>
<td>1인당 연면적</td>
<td>5㎡ 이상</td>
<td>20.5㎡ 이상</td>
</tr>
<tr>
<td></td>
<td>1인당 실내면적</td>
<td>6.6㎡이상</td>
<td></td>
</tr>
<tr>
<td>시설, 설계조건</td>
<td>첨탑, 식당, 조리실, 욕실(샤워, 목욕, 재배, 화장실)</td>
<td>공리지역, 사무실, 비상대피동생지역</td>
<td></td>
</tr>
<tr>
<td></td>
<td>적절치조기준</td>
<td>시설장+요양보호사(임소자 3명당 1명)</td>
<td>시설장+간호사 또는 공리지역사 1명 + 요양보호사(임소자 3명당 1명)</td>
</tr>
</tbody>
</table>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9(17조 1항 관련), 별표4(22조 1항 관련)(2008.7개정)

공동생활가정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비해 1인당 면적, 첨탑면적이 크며, 시설장과 요양보호사(3인당 3명)에외도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다면 이와 같은 설치지침은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가정적인 환경의 수요를 노인일소지
설로서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첨탑 1실을 최대 4명까지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수가 너무 많아 노인에게 적합한 침실과 같은
은 휴식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제로 4인실 첨탑
에서의 입주고객의 대화나 교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2-3인의 생활단위의 차이, 기호나 취미의 개인
차로 인해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기산, 2007). 따라서 1실 1인 사용을 기준으
로 하여 사용자수에 따라 방의 크기를 조절하여 1실 2-3
인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1인에 노인이 사용하는 가구나 장식품을 한 두 가
리라도 방에 비치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2-3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신호하는 노인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은 요양급여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차례가 있는 노인만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소규모의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거울이 키와 노인의 지적지능에
나 행동장애의 완화에 효과적이며 향후 치매노인을 입
소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급을 확장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도 80년대 후반에는 치
매노인에 관계없이 입소했으나 90년대 중반 치매성 고령
자그룹돌이 제도화되고 (成田良彦, 2004), 2000년부터
실시되기 시작된 개별보호제도에서 치매성 고령자그룹돌
을 재택홈서비스의 하나로도 규정하고 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설비기준

<table>
<thead>
<tr>
<th>노인주거복지시설</th>
<th>노인의료복지시설</th>
</tr>
</thead>
<tbody>
<tr>
<td>양고시설</td>
<td>노인양영생활가정</td>
</tr>
<tr>
<td>노인요양시설</td>
<td>노인요양생활가정</td>
</tr>
</tbody>
</table>

#### 입소 정원
- 양고시설: 10명이상
- 5~9명
- 노인요양시설: 10명이상
- 5~9명

#### 1인당면적
- 15.9㎡ 이상
- 23.6㎡ 이상
- 29.5㎡ 이상

#### ②시설의 구조 및 설비
- • 집, 계절, 환경 등 보건위생, 재배방지를 충분히 고려
- • 화장실, 세면실 등은 원예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하위수급 시 설비, 비상구 설치 부족,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의 노인의 활동에 관여한 구조물
- • 노인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 되는 적절한 환경, 체육 주간시설 설치 및 입소자 이용에 제한 없는 범위의 외부활동
- ○보수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따로 소유용 기기 비치, 비상구 설치(10일 미만시설은 소화용 기기 구비 및 시설설계에 맞게 비상재해 대비)

#### 공간별 설비

#### ④설명

#### ⑧설명

#### ⑨설명

#### ⑤설명

#### ⑥설명

#### ⑦설명

#### ⑧설명

#### 출처: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17조 1항 관련), 법정표(22조 1항 관련)(2008.7개정)

### 노인그룹홈 실태조사

####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실태조사 대상 노인 그룹홈의 일반사항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은 전주시 및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며 4개소 모두 2002년 이후에 공급되었다. 시설의 유형은 조사당시 조건주요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2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1개소), 유료노인요양시설(1개소)이었으나 현재는 노인요양생활가정(3개소), 민간노인요양시설(1개소)이다. 또한 문화 범위이 아닌 개인신고시설이며 정부나 자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주택형태는 모두 단독주택이며 단층주택이 1개소, 2층 주택이 2개소, 3층 주택이 1개소이며, 입소자 거주기간에 1층에서 위치하는 곳은 1개에서, 2층에서 위치하는 곳은 2개에서, 시설의 경영기상도 시청을 대상하여 건축된 건물이 3개소, 재건축된 건물이 1개소이다. 주택의 입주조건은 시설근로자와 자연계약이 3개소이며 일반주거지역이 1개소이다. 한편 입소자수는 9~14인이며, 연령 대는 48세~59세이다. 수발자수는 2~6인이 상주하는 주 수발자수는 1~4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 수발자수는 0~2인이며, 운영주체는 모두 개인이며 종교인이다.

한편, 노인 그룹홈의 이용료는 월 30~60만원 수준인데, 입소자의 수발요구도, 경제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금액을 상하 향상 조정하기도 한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곳은 3개소(그룹홈A, B, C)이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곳이 3개소(그룹홈D)이다. 이용료는 대부분 차지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기초생활 보장금을 이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노인생활지지시설과는 달리 임소비 보중금이 필요하지 않아 입·퇴소에 대한 실리적, 경제적 부담이 적고, 이용금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임소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그룹홈의 물리적 환경

조사대상의 임소가 거주층의 평면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룹홈A는 2층 주택으로 1층은 임소가 생활하고 2층은 운영자가주거가 생활하며, 1층과 2층은 외부계단으로 연결되어있다. 임소가 생활하는 1층은 거실이 중앙부에 직방형으로 길게 배치되어 1층에 있는 모든 공간과 연하고 있다. 그 결과 침실, 주방, 욕실 등 화장실과의 접
근성의 좋은 반면 육체·화장실의 미세기문이 엉했을 때 내부가 들어다보이는 문제가 있다. 직원들은 안쪽에 위치해 있어 현관주변의 도장이 흐려울 수 없다. 비계절풍 등은 수납하는 창구는 주부밖에 위치해 있다. 그룹B는 2층 주택으로 1층은 임차자 거주중, 2층은 운영자가 족이 거주하는 층이며, 1층과 2층은 외부재난으로 연결되어있다. 임차자 거주중 1층은 청소의 북도를 미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을 거잡기로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청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만 북도 안쪽에 위치한 청소의 가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내부화장실이 없는 북도 안쪽에 위치한 청소의 가설로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많다. 내 곳 중 유휴해선 청소네트를 갖추고 있어 그룹B는 단층주택으로 운영자는 거주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청소는 통로나 북도가 없이 연속해서 배치되어있어, 독립성을 확보될 수 없다. 그런데 6개 청소 중 3곳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 거실은 직방형으로 간 형태이며 마당을 연하고 있어 지방이 좋다. 비계절풍 보완용도인 다음도설을 갖추고 있어 그룹B는 3층 주택으로 1층과 2층은 임차자들이 생활하고 3층은 운영자가 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내부재난으로 연결되어있다. 청소는 사무실과 연결된 1개의 창고를 제외하고는 거실·식사실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청소는 모두 내부화장실과 연결되어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짧다. 거실·주방은 직방형으로 모든 공간과 연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거실·주방을 침범으로 갖추고 있다. 한편 주출입구인 현관과 임소자 거주부 사이에 사무실과 계단실이 위치해 있어 임소자 거주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사무실을 통해서 외로 입출입할 수 있다. 

성립간 구성형태와 각 실의 면적은 표7과 같다. 청소실은 실제 보단 단위침실의 평균면적은 10.4마²이며, 침실 측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조사 대상 중 침실크기가 균일하게 구성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그림 2 참조). 식사와 단판,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용공간인 주방, 거실, 식사는 단위실 중 가장 면적이 큰 공간이다. 공간형태는 주방·식사실·거실이 한 공간으로 통합된 형태(그룹A, 그룹C, 그룹D), 주방과 거실·식사실로 나뉘진 형태(그룹B, 그룹D), 주방과 거실로 나누어져서 식사실로 전용하는 형태(그룹C)를 나타낸다. 식사실 면적비율은 주방·식사실·형평형(그룹A, D)은 식사실이 약 35.5마², 33.6마², 면적비율이 44.3%, 34.6%, 주방과 거실·식사실로 나뉘진 형태(그룹B)는 식사실이 약 40.5마², 면적비율이 26.7%, 주방과 거실로 나뉘고 식사는 침실을 전용하는 형태(그룹C)는 식사실이 약 41.3마², 면적비율이 28%이다. 세면, 입욕, 운반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옥실.

<table>
<thead>
<tr>
<th>(표 7) 조사대상의 실구성형태와 실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주택층수/인가주주차</td>
</tr>
<tr>
<td>-----------------------</td>
</tr>
<tr>
<td>2층주택/1층</td>
</tr>
<tr>
<td>2층주택/1층</td>
</tr>
<tr>
<td>단층주택</td>
</tr>
<tr>
<td>3층주택/1층</td>
</tr>
<tr>
<td>실구성형태</td>
</tr>
<tr>
<td>청소실</td>
</tr>
<tr>
<td>주방·식사실·거실</td>
</tr>
<tr>
<td>수영</td>
</tr>
<tr>
<td>거실·식사실</td>
</tr>
<tr>
<td>거실</td>
</tr>
<tr>
<td>욕실·화장실</td>
</tr>
<tr>
<td>욕실</td>
</tr>
<tr>
<td>화장실</td>
</tr>
<tr>
<td>북도</td>
</tr>
<tr>
<td>수납공간</td>
</tr>
<tr>
<td>세탁실</td>
</tr>
<tr>
<td>직원실</td>
</tr>
<tr>
<td>주택층면적</td>
</tr>
</tbody>
</table>
화상능 통합형(그룹 tongA, D)과 육질화상능 분리형(그룹 tongB, C)의 2가지가 나타난다.

3. 노인그룹홈의 운영현황

조사대상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소경위 및 절차, 주변지역주민의 반응, 생활관리 및 공간관리 현황, 운영자의 업무내용, 운영억전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을 설문조사를하였다.

1) 업소경위 및 절차: 업소주 유고시에 연락하고 책임소재를 명부하게해, 입소할 때 입소대상자의 보호자가 입소자와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입소자는 입소자 가족의 소재, 지역의 소재, 교육의 소재 등 사적인 베타워크를 통해서 조사대상 및 연락할 수 있는 도중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는 노인그룹홈 간의 정보교류, 서비스 절, 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1998년 '전국 교육 responded 그룹홈협회', 1999년 '노인용 그룹홈 전국네트워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2) 주변지역주민의 반응: 가입부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개소는 모두 처음부터 간관을 부탁하고 있다. 노인그룹홈이 생일 당시 주민의 반대 유, 무를 확인한 결과, 주민이 반대한 곳은 1개소(그룹 tongB)이며 시설장이 주민들에게 협의시설이 아닌 절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도심의 일반주거지에서 노인그룹홈의 공급이 발생되는 것이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그룹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관리 및 공간관리: 청소, 음식 준비, 설거지 등의 생활관리 및 공간관리의 주체 및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생활관리, 공간관리에 입주자가 참여하는 시설은 1개소(그룹 tongA)에 불과하고 나머지 3개소(그룹 tongB, C, D)는 수발자가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참여가 어려운 경우(그룹 tongC, D)와 건강이 허락하지만 입주자의 참여여부가 없는 경우(그룹 tongB)로 나누어진다. 한편 입주자가 건강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곳(그룹 tongA)과 건강전에 참여하지 않는 곳(그룹 tongB)의 차이는 입주자의 자발적 참여여부 유, 무, 입주자와 수발자의 절채도 정도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자와 수발자 간의 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 및 공간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감을 형성시키고 자발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운영현황: 그룹은 운영자의 임무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 2가지와 그 비중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4개소는 모두 처음부터 간관을 부탁하고 있다. 노인그룹홈이 생일 당시 주민의 반대 유, 무를 확인한 결과, 주민이 반대한 곳은 1개소(그룹 tongB)이며 시설장이 주민들에게 협의시설이 아닌 절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심의 일반주거지에서 노인그룹홈의 공급이 발생되는 것이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그룹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상 이론으로, 그룹 혈은 순지하며 사무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한편 운영비용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수자의 이용료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2개소(그룹호 C, D)로 입수자 이용료 10%이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2개소(그룹호 B, D)로 주로 입수자의 이용료에 의존하고 있다.

운영자들의 노동그룹호 운영여건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정리하면 그림 4~5장과 같다. 운영자들은 노동그룹호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점으로 자원봉사자부족, 운영비용 부족, 지역사회 협조체계 부족을 꼽고 있다(그림 4).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연료비, 공급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5). 또한 앞으로 노동그룹호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인건비지원, 임대자금이나 건축자금의 지원, 자원봉사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을 들고 있다(그림 6).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재정적 불안정,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업소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달로 양해한 개인시설의 특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노동그룹호 운영에 대한 경제상태를 통해 운영형태를 고려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동그룹호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은-transparent하게 하는 것 전체에 통합적 차원인(인건비, 임대료, 건축자금), 안전상태(자원봉사 지원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 등 노동그룹호 운영여건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환경

본 연구에서는 노동그룹호의 정상적인 가정적 환경 여부, 노인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구비 여부,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여부에 초점을 맞춘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평가를 위한 4가지 분석 지표를 추출하였으며, 노인주거환경 평가와 관련된 연구(김현진 외, 2000, 박현숙, 2002, Cohen, 2003)를 참고하였다. 4가지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보통의 주택과 같은 친근감 있는 환경인가(외관이 친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스타일인가, 실내공간이 가정과 유사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인가) 친근감을 느낄 수 없는 시설과 같은 외관과 내부환경, 예를 들면, 건 복도 양면에 깔은 모양의 문이 직선으로 나열되어 있는 난방 실내 환경은 친근미능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실내 집과 유사한 가정적인 주거환경은 입소노인의 적용을 돕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b. 환경적 장애물은 제거되었었는가(노화 및 시각에 관련된 신체장애, 인지기능, 행동장애, 감각장애에 대한 간각·디자인적 배려가 되어있는가) 노화가 진행되면 감각기능의 저하와 운동기능의 악화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노인의 안전을 지키고 전문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필요하다. 특히 치매노인은 사랑감거나 이 외의 문제로 인해 주거생활에 잡음이 많고 사회적, 파는 공간에 있어서도 쉽게 흩어지거나 불안해지는 정상이 있으므로 주거환경 및 건축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주진영, 2006).

c. 적극적 관리의 주거환경인가(물리적으로 완벽한 환경과, 생활관리, 공간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한다, 노인들의 생활을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조명, 청소, 풍등, 화기는 신선한 공기,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요소가 있는 노인이나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가게를 사용하느냐,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충분한 환기, 풍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조명과 청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크게 하고 창문을 낮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거실은 낮 시간의 생활이 짧게 증화하는 공간이므로 청소, 조명조건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공간관리, 생활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이물, 작은 수납공간, 철간이 없을, 음, 생활용품 등에 보관공간이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시로 다양, 더 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d. 노인이 살아갈 생활문화, 생활방식을 배려하는가(노인이 친숙한 의식·주생활방식을 수용하고 있는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친숙한 생활방식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대부분 평소에 좌식(일상에서 식사하고, 이물과 잘 맞추어져, 방바닥에 않아도 적당한 방식) 생활을 하였다. 이로 인한 식탁에 외관적으로 식사하고, 좌식에 맞추어 좌식을 보다 좌식을 더욱 편안한 생활방식으로 받아 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은 조사대상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주택의 전반적인 환경을 삼아보면 위해 평가영역을 주택외부와 주택내부로 구분하였으며, 주택내부는 현관, 침실, 화장실·욕실, 수납공간, 세탁실이 5개 공간
(표 8) 조사대상의 주관적, 생활환경 평가

<table>
<thead>
<tr>
<th>문항코드</th>
<th>평가영역</th>
<th>번호</th>
<th>평가항목</th>
<th>체크리스트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a. 보통의 주택과 같은 환경에 있는가?</td>
<td>주택</td>
<td>1</td>
<td>건물의 외관이 가정처럼 느껴지니가?</td>
<td>그룹A: 2</td>
</tr>
<tr>
<td></td>
<td></td>
<td>2</td>
<td>이상, 환관이라는가?</td>
<td>그룹C: 2</td>
</tr>
<tr>
<td></td>
<td></td>
<td>3</td>
<td>밤, 침구, 가구, 조명은 가정처럼 느껴지니가?</td>
<td>그룹D: 2</td>
</tr>
<tr>
<td></td>
<td>거실</td>
<td>4</td>
<td>밤, 침구, 가구, 조명은 가정처럼 느껴지니가?</td>
<td>그룹D: 2</td>
</tr>
<tr>
<td></td>
<td>정원</td>
<td>5</td>
<td>정원이 가정의 정원과 다른가?</td>
<td>그룹D: 2</td>
</tr>
<tr>
<td></td>
<td>화장실, 욕실</td>
<td>6</td>
<td>화장실, 욕실이 가정의 화장실과 다른가?</td>
<td>그룹D: 2</td>
</tr>
<tr>
<td></td>
<td>타이, 활성가구의 식사, 디자인은 가정처럼 느껴지니가?</td>
<td>그룹D: 2</td>
<td></td>
<td></td>
</tr>
<tr>
<td>b. 전경적특양을 갖추고 있는가?</td>
<td>정원</td>
<td>7</td>
<td>정원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8</td>
<td>정원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9</td>
<td>정원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10</td>
<td>정원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거실, 식사실</td>
<td>11</td>
<td>거실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12</td>
<td>식사실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13</td>
<td>거실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td>
<td></td>
<td>14</td>
<td>식사실의 전경이 환경하니가?</td>
<td>미세기: 1</td>
</tr>
<tr>
<td>c. 제작하고 경력한 주거환경인가?</td>
<td>주택</td>
<td>15</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16</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17</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18</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19</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0</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1</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2</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3</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4</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5</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6</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27</td>
<td>제작의 주택은 충분한가?</td>
<td>1</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28</td>
<td>22</td>
</tr>
<tr>
<td>d. 노인의 생활환경을 구축하는가?</td>
<td>주택</td>
<td>28</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29</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0</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1</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2</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3</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4</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5</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36</td>
<td>적절한 주거환경은 갖추고 있는가?</td>
<td>2</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37</td>
<td>15</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38</td>
<td>22</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39</td>
<td>22</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40</td>
<td>6</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41</td>
<td>6</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42</td>
<td>6</td>
</tr>
<tr>
<td></td>
<td></td>
<td>소계</td>
<td>43</td>
<td>53</td>
</tr>
</tbody>
</table>

주) 체크범위 기준: 2점: 매우 그렇다, 1점: 보통이다, 0점: 그렇지 않다.
활동화, 생활방식의 배려하는가의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즉 주택안의 단독주택과 유사하고 실제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위생가구, 가구 등에 대한, 색상, 디자인이 일반 주택과 유사한 것이 사용되어 보통의 주택과 같은 천연감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진1, 사진2). 또한 이중을 잘고 취침하고, 밤장소에서 자的进步하고, 범바닥으로 앉아 휴식하는 등 노인에게 선호한 좌식 생활방식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종류의 노인소식처소에서 침대, 식사를 이용하는 입식생활방식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대조적이다.

한편 좌식생활방식은 이복, 발상에 중점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있지만 침대, 식탁, 소파 등이 없으므로 취침,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과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좌식 생활방식이 노인생활공간에 적합한지 갖추기 위해서는 좌식 생활방식의 요세 인의 생활기능, 신체기능의 전존능력, 심리적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대상 4개소는 분석지표2(b) (환경적 장애물 상태)와 관련된 7가지 평가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0점으로 평가되며, 환경적 장애요소의 개선, 제거가 필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즉 침실 출입문 주변에 눈에 띄는 색. 그림, 어둠이 사용되지 않았고, 안전지지대의 형태, 재질, 위치 등이 적절하지 않으며, 육식에 따라 변방이 설치되지 않았고, 타일, 위생장치가 없어 질색이 아니며,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조사대상 4개소는 분석지표2, 분석지표3에 관련된 주거환경, 생활환경면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내용을을 그룹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룹2: 분석지표2의 평가항목점수는 총1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환경적 장애물의 제거상태가 좋지 않다. 즉, 현관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으나, 마감상태가 갈끔하지 않으며 바닥판자는 20cm이상으로 혼잡을 타고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사진3). 침실은 안전사고 예방에 좋은 미세가문 형태로 내부가 불투명유리창으로 되어있어 실내의 기적을 살피기에 용이하며, 파일럿램프가 부착되어 야간의조명사용이 용이하다. 반면 시켰자치 부주의로 인해 문지방의 바닥이 툇들어되어있다. 거실 및 식사실의 바닥마감재는 모노모듈판이며 미끄럼지는 있으나 바닥이 너무 작아하다.

화장실 및 욕실은 모든 실에서 접근성이 좋은 상태이다. 예를 들면, 실내천장형으로 인해 거실 및 식사실에서 화장실내부가 들려보인다(그림 2 참조). 또한 욕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입욕, 용변, 세탁이 간편히 이루어져므로 독립적인 사용이 어려고, 좌변기 2개소 중 1개소에만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어있다.

분석지표3의 평가항목점수는 총10점으로 침실, 거실의 체장, 바닥, 환기가 충분하고 환풍기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침실 내에는 이불, 옷,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2) 그룹3: 분석지표2의 평가항목점수는 22점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장애물이 적은 상태이다. 즉, 현관 바닥판자는 7cm이내이며, 경사로가 있고 주변에 난간까지 설치되어 침대,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침실, 거실 바닥에는 약간 미끄러운 모노모듈판이 걸려 있다. 화장실 좌변기 주변에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사진4). 분석지표3의 평가항목점수는 15점으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아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세탁실을 별도로 구ivating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그룹4: 분석지표2의 평가항목점수는 14점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 장애물이 많은 상태이다. 현관의 바닥판자는 20cm이상으로 혼잡을 타고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침실 조명 스위치는 파일럿램프가 부착되어
이지 않다. 한편 타인의 도움 없이 응답이 가능하도록, 첨일마다 체명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 점이 주목된다(사진). 분석대표본의 평가항목점수는 9 점으로 주취환경의 적정성, 편리성 수준은 조사대상 4개소 중 가장 높다. 안전에 위치하는 체험은 제공이 전혀 이루어져지지 않았고 방이 어둡고 환기, 통풍이 얇아졌다. 또한 첨일마다 설계된 체명이 벽체로 구분되지 않고 키트로 가려져 있거나 개방되어 있어 눈에 거슬린다.

4) 그룹A: 평가점수가 총 58점으로 조사대상 중 주거환경, 생활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분석대표본의 평가항목점수는 26점으로 조사대상 중 환경적 장벽을 제공한 점수가 가장 높다. 현관 단차는 7개이며, 마당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설치되어 체험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다.

분석대표본과 관련된 평가항목점수는 16점으로 조사대 상 중 주거환경의 적절성, 편리성이 가장 우수하다. 첨일의 창틀높이가 40cm이므로 낮어서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체험에서 많은 자료로 바갈을 볼 수 있고 체험조건이 좋다. 또한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첨일, 거실, 식사실에 불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내의 장려점들이 가장 잘 되어있다(사진6).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환경의 소규모 노인임시시설의 노인 그룹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에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천 연구결과와 과제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200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공 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실시되면서 노인 그룹이 공식화되면서 2008년 노인요양보호법이 도입되어 임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으로 따라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 공급의 증대가 예상된다. 현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을 요양급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치매예외 가정환경의 소규모시설이 효과적으로 치매노인을 입 소대상으로 하는 치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급을 확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현재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신규공급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사례, 설비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시설규모의 대. 소, 소폭자수의 대. 소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규모 노인공동생활시설로서의 장점을 살리기에 부적합하다. 예를 들면 노인이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관리능력 유지. 향상, 자신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식당. 조리실 설치기준은 노인의 참가가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노인이 식사준비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주방과 식사실 사이에 충분한 크기와 적절한 높이의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식당. 조리실의 사설기준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가정적인 환경의 소규모노인임시시설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첨일 실을 해제 4인까지 사용하는 것은 노인에게 적합한 가정집의 형상과 같은 느낌을 주기 어렵고 주. 야간의 생활이, 취미, 기호의 개인차로 인해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우수하다. 따라서 방의 크기를 조절해 서 1. 2. 3인 사용, 1실 2. 3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상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인실은 노인이 사용해 온 가구나 장식품을 비치해 심리적.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있으며, 2. 3인실은 어릴어서 생활할 것을 신호하는 노인에게 적합하다. 한편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개소 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비합상, 주. 야간 인력배분의 어려움 등도 예상된다. 동일 대처나 인적한 곳에 2개소 이상을 공급하는 것은 운영을 효율화하고 임상자의 성향. 관리에 따라 유니크로 선택.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4) 조사대상은 입소한 때 보조급이 거의 없어 입. 퇴소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또한 월 이용료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료의 조정이 가능해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입소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소정원을 확인한 결과, 입소자 가족의 소개, 이는 사람의 소개 등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재미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입소자의 퇴소나 사망에 따른 충원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비용을 입소자의 이용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개인시설은 재정적 인 불안정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산이 정 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이다.

5) 조사대상은 도시근교의 자연복지와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랜데 노인그룹은 대규모시
설화는 달리 단독주택과 유사한 외관과 규모이므로 도심
부의 일반주거지에 위치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는 도심
의 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의 접근성이 완벽하고 지
역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방향 일반주거지로서의 공급만에 대해서만 일반인
을 대상으로 인프라국품을 보충할 수 있어서 기피대상 시설
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조사대상은 모두 개인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급, 운
영에서 국가나 지역의 지원이 없는 대신에 행정관청에
의한 관리감독도 거의 없다. 한편 운영자들은 재정적 어
려움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느
끼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연료비,
공급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항 후 노인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전문인력,
자원봉사자)과 물리적자원(건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항후 노인그룹홈의 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도모
하기는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연계수립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
여사회 협조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7) 노인그룹홈의 장점인 가정적 환경적, 노인의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에 적합한 환경적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그지 않은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추계환경, 생활환경
을 평가하기도 한다. 조사대상 4개소는 모두 단독주택과 같은 외
관을 갖고 있으며 실내공간의 폭넓은, 실내안정, 위
생기구, 가구 등은 가정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또한
설법에 정확한 번출을 사용하고, 복음과 가을 취침간, 휴식
할 때 방바닥에서의 두 노인들도 친숙한 좌식 생활방
식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노
인의 시각감각, 행동기능, 경제기능의 저하 등에 대처하
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노인그룹홈의 환경적 장애물
개선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노화로 인해 시각 및 삼각구별능력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해 침실출입문·주변을 보고 본인의 침실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눈물에 빛는 색상이나 갑옷, 이중모 등을 활
용하고, 육식·화장실의 세면대, 좌석기 등의 눈에 띄는
색상을 설치한다. 2) 옥식·화장실에서의 안전과 발병
에 대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음식을 갑작스러운 체
온계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
타 난방을 설치한다. 3) 안전지지는 잘고 기대기 관리
한 형태, 재질을 선택하고 노인의 동작, 신체조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주거공간은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납장을 총분히 설
치하고, 육식과 세탁공간을 구분한다. 한편 본 연구는 조
사대상지역이 우리나라 서남부지방의 두 도시로 한정되
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도변을 대상으로 한 후
속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그룹홈, 노인

참고 문헌
곽순국, (2002).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윤리적 환
경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학회지. 41(3), 77-86.
김태현, (2003). 개발가능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
용 그룹홈. 대한간호학회논문집. 16(7), 21-30.
김환진, (2005). 생활환경적 특성에 본 자립형 고령자 그
룹홈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김환진, 이경학, 안용희, (2000). 노인주택의 평가항목 설정
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의학회지. 11(3), 71-86.
김상희, 정기남, 정기자. (2008).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의
환경적 특성. 대한간호학회논문집. 24(6), 319-328.
박석돈, 이우희, 박사성, 박순미. (2004). 노인복지론. 서울:
오현진, 김민규, 맹영기. (2001).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
주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논문집.
주정영, 홍문주. (2006). 노화, 치매 그리고 건강, 대한간호학회지 건
홈, 한국마케팅학회지. 83(3), 67-79.
최창신, 김태한, 권오경. (2003).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의 개
발적 관리방안. 서울: 김동연.
課題, 明治大学经营学部经营学科卒業論文.
